

# “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 세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Good News of a Great Joy)이 전해진 성탄절 맞이로 떠들썩해진다. 왕 중 왕이시오 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성탄절은 큰 소식(big News)이 있는 날이다.**  
 일간지의 머리기사나 TV뉴스의 첫머리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소식으로 기억될 만한 것들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뉴스다. 누구에겐 전혀 뉴스감도 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소식은 영원히 세상 어디서나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역사 속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는 소식은 언제, 어디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놀라게 한 큰 소식이 된 것은 크리스마스는 모순과 역설(Incongruities & Paradox)이기 때문에 큰 소식으로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종말까지 기억되어야 할 날인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이 성탄절이다. 이는 농담이나 신화적 작품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으니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왕 중 왕 · 주의 주께서 비천한 말구유 위에 나셨다는 사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인숙도 호텔도 궁궐이나 총독의 관저도, 헬라 철학자의 집도, 아골라의 사당도 아닌 누우실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나셨다.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못 서는 천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린 것도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큰 소식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 불교 국가 심지어 샤머니즘 국가의 백성들까지도 크리스마스를 큰 소식으로 알고, 성탄카드, 선물, 집집마다 트리를 세우고 감격과 기쁨으로 지낸다.

**성탄절은 기쁜 소식(Joyful News)이 있는 날이다.**  
 영국 문학가인 C.S. 루이스교수는 그의 자서전 ‘기쁨으로 놀란 사람’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기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 성탄의 신비 속에서 천사들,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동방의 박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눅 15:7, 10)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더한다 했으니 죄인 한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 탄생하셨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요 17:13)라 하셨다. 주님의 기쁨은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며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다. 기쁨은 행복과 다르다. 행복(Happiness)은 일어난 사건에 따라 자세가 바뀌며(happen stance) 뜻밖의 우연한 일로 행복감은 가감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 근거한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 한다. Jesus · Others. Yourself 즉 예수님 · 타자를 우선하고 · 자신을 후미에 둘 때 맛볼 수 있다 한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중생을 다스려 주시고 보전, 필요를 보급해 주신 특히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한다. 성탄절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뉴스 중엔 나쁜 뉴스, 거짓 뉴스도 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이가보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원한다.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죄와 어둠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기에 대한 출생과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 9장을 통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 선물을 보내주실 것을 주전 800년경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였다. 그것은 구원, 평화, 다스림 그리고 그 아이 즉 임마누엘을 주셨다. 그는 기묘한 모사(Wonderful Counsellor),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 이 소식을 받은 성도답게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2019년 12월 14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기쁨 가운데 대림절 4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24일 저녁 8시에는 성탄 전야예배, 25일 새벽 5시에는 성탄새벽예배,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당국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지만, 서울교회는 선제적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강화된 방역기준에 의하더라도 예배드릴 공간이 충분하여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성경 배부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교회학교는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경우에는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락방이나 부서 등 성도들간의 친교를 위한 연말 식사모임도 자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219\\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219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 기쁜 날을 기다리며 ”

**■ 습 3:14-20**  
 이스라엘은 약속국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 외침에 시달리고 강대국들의 협박에 울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떠났고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사랑과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한 민족입니까? 스바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만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의 날이 되면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주의 은혜의 날은 회개의 날**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상승배에 빠져 있었고(1:4,5), ‘여호와께서는 화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하였습다(1:12). 특히 상류사회의 부도덕과 포악, 교만과 방종은 도를 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곧 성결과 회개입니다. 광야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이다..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이다.’(2:1,2)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은 회개의 날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부패를 회개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산 것을 회개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는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 주의 은혜-하나님의 임재**  
 험하고 복잡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듣는 최대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중 밤낮으로 보았던 구름과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솟은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확인하고 힘든 광야길을 다시 걸을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이 온전하고 영원히 성취된 것이 예수탄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성탄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요, 임마누엘 언약의 실현입니다. 성탄절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갱신되고 실현되는 날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개혁합시다.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때 성탄의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관계를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눅 15:7) 요나가 마지못해 단 하루를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예정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스바냐서에는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7번 나타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을 회개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부패를 우리의 잘못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문 열고 맞이하면 하나님은 춤추듯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이런 좋은 날을 주시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안용곤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8:5-6...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8(구주강림4)... 다 합 께
-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찬 송 Hymn .....104(104)... 다 합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습 3:14-20...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 설 교 Sermon ...“기쁜 날을 기다리며”... 손달익 목사
- \* 찬 송 Hymn .....112(112)... 다 합 께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찬양예배

-성탄 축하 찬양예배-

-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 목 도 ..... 다 합 께
- 성 시 ..... 시 113:1-2 ..... 인 도 자
- 찬 송 ..... 120(120) ..... 다 합 께
- 기 도 ..... 김성준 집사
- 성 경 ..... 행 12:11-25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말씀은 더욱 흥왕하고” ... 설 교 자
- 특별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 \* 찬 송 ..... 336(383) ..... 다 합 께
- \* 축 도 ..... 설 교 자
-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예배

- I부 오전 11시
-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기 도 ... I부: 김선영 권사 II부: 문분순 권사
- 성 경 ..... 삼하 14:25-33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가서 불을 지르라” ... 설 교 자
-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 설 교 ..... 손달익, 조원영 목사

## 새벽기도회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 임시 당회 / 22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안건: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안)
- 특별제직회 / 26일(주) 찬양예배 후 예 · 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성탄절기예배 안내 / 이번 주간은 성탄절 기간으로 모입니다.  
성탄전야 예배: 24일(금) 오후 8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성탄새벽 예배: 25일(토) 오전 5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성탄축하 예배: 25일(토) 오전 9시, 오전 11시 본당에서 열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 결혼

- 주정주 군(14교구 광선자 권사의 장남)과 현지희 양(현철후, 조옥숙 씨의 장녀) / 12월25일(토) 오전 11시 메리빌리아 프리모소르홀(032-864-5500) / 인천1호선 테코노파크역 2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27명	422명	2,049명	442명	2,067명

## 성탄절은 오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연시의 송년회와 더불어 성탄절에 대한 행사가 비단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진행된다. 성탄 절기가 오면 크리스마스카드가 캐롤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이토록 상업적이고 환락의 열기로 끌고 갔을까.

본래 성탄절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말구유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아기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마다. 바른 성탄정신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성탄절은 희생하는 정신이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도성인신의 도리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탄절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신 것이다. 성탄절은 섬기는 정신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

바른 성탄정신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